

동부하이텍, 유럽 반도체 시장 공략

유럽경제 회복 타고 프랑스 영업지점 개설 ... 이태리에 추가설립 계획

동부하이텍(대표 박용인)은 프랑스 니스에 반도체 영업지점을 개설하고 본격적인 유럽시장 공략에 나섰다.

동부하이텍 관계자는 “유럽은 자동차용 반도체 및 산업용 아날로그 반도체가 강세를 보이며 세계시장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최근 유럽경제가 점차 회복세를 보이는 것을 계기로 지점을 개설했다”고 말했다.

유럽 영업지점은 본사에서 관리하던 10여개 수요기업에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규 거래선을 확보하는 활동을 수행하게 되며 프랑스 출신의 크리스토프 비앙키씨가 영업지점을 총괄할 예정이다.

프랑스 국립응용과학원 전자공학 박사 출신인 비앙키씨는 1995년부터 반도체기업 케이던스에서 유럽 및 글로벌 영업담당 임원을 지낸 마케팅 전문가이다.

동부하이텍은 프랑스에 이어 이태리 밀라노에도 기술·마케팅 인력을 갖춘 영업지점을 연말까지 추가 설립할 계획이다.

또한 미국 보스턴과 일본 오사카 등에 차례로 영업지점을 여는 등 글로벌 영업망을 넓혀 아날로그와 믹스드 시그널 반도체를 중심으로 파운드리 영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8/19>